[UCI]I804:24011-200000234595

2005년 8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전공)학위논문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른 시설만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전 공

홍 재 곤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른 시설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in Using Mudeungsan Provincial Park

2005 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전 공

홍 재 곤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른 시설만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노 형 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체육교육전공)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 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전 공

홍 재 곤

홍재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5 년 6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 iii
그림목차 ····· v
Abstract ····· vi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연구문제 ····· 2
4. 연구의 가설 ····· 3

Ⅱ. 이론적 배경 ····· *5*
1. 무등산 ····· 5
1) 개관 ····· 5
2) 행정권역 ····· 5
3) 무등산의 주능 ····· 6
4) 무등산 등산로 현황 ····· 7
2. 도립공원의 개념 ····· 8
1) 도립공원의 지정 ····· 8
2) 도립공원의 선정기준 ····· 10
3) 도립공원의 구역설정 ····· 10
4) 도립공원의 자연보호 및 이용 계획 ····· 11
3. 등산의 운동효과 ····· 15
4. 선행연구 ····· 16

Ⅲ. 연구방법 ····· *18*

1. 조사대상 ····· 18
2. 조사도구 ····· 20
1) 설문지의 구성 ····· 20
2) 타당도 검사 ····· 21
3) 신뢰도 검사 ····· 24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 25
1) 조사절차 ····· 25
2) 자료처리 ····· 25

Ⅳ. 연구결과 ····· *26*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 요인의 관계 · 26
2. 무등산 도립공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관계 · 37
3.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관계 ····· 42

Ⅴ. 결론 및 제언 ····· *45*
1. 결론 ····· 45
2. 제언 ····· 47

참고문헌 ····· *48*

부록 ····· *50*

표 목 차

<표 1> 무등산 등산로 현황 ····· 7
<표 2> 도립공원 현황 ····· 9
<표 3> 자연공원 지정기준 ····· 10
<표 4>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정의 및 허용행위 ····· 12
<표 5>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정의 및 허용행위 계속 ····· 13
<표 6> 자연공원의 시설계획별 일람표 ····· 14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 19
<표 8> 설문지의 구성지표 ····· 20
<표 9> 이용형태 문항에 대한 고유값 ····· 21
<표 10> 이용형태 문항에 대한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 22
<표 11> 시설만족 문항에 대한 고유값 ····· 22
<표 12> 시설만족 문항에 대한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 23
<표 13> 시설만족에 관한 Cronbach's α 계수 ····· 24
<표 14> 성별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26
<표 15> 성별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27
<표 16> 연령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28
<표 17> 연령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29
<표 18> 학력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30
<표 19> 학력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31
<표 20> 직업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32
<표 21> 직업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33
<표 22>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35
<표 23>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 36
<표 2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등산참여자들의 이용형태에

관한 분산분석 ····· 38
<표 25> 이용형태에 따른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한 분산분석 ····· 39
<표 26>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한 분산분석 ····· 40
<표 27>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간의 상관계수 ····· 41
<표 28> 조사대상자의 이용형태에 관한 빈도분석 ····· 43
<표 29> 조사대상자의 시설만족에 관한 빈도분석 ····· 44

그림 목차

<그림 1> 등산참여자의 이용형태와 시설만족의 관계구조모형 ····· 3

ABSTRACT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in Using Mudeungsan Provincial Park

Hong Jae-Gon

Advisor ; Prof. Roh Hyung-Chull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ets men and women climbing Mudeungsan Provincial Park in 2005 as population to verify the research on their satisfaction with facilities of Mudeungsan Provincial Park and takes 300 samples by systematic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aking questionnaire was based on self administered method and 286 respondents (95.3%) were used as valid samples.

For data analysis,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10.1 were conducted and if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Duncan method was used as post-test. Results of verification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and data analysis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factors using provincial park according to demographical variables, women spent more time in using Mudeungsan provincial park than men and those who are below 41～50 years old and 51～60 years old often participate in climbing. The higher education, the more climbing, and public officials/teachers often participate in climbing and have interests in facilities.

Second, in factors of facility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al variables, men have higher interest and satisfaction in such factors as climbing classification, hours and traffic means and women in factor of climbing frequency. The elder they are, the higher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in climbing classification, hours and frequency they have.

Third, in factors of facility satisfaction according to using pattern of provincial park, general mountaineers of short career enjoy light walking or climbing with their companions. In particular, company companions have intimacy with those who share the same hobby of climbing and they show higher satisfaction with number and location of facilities. Mountaineers hope to have more comfortable and sanitary toilet and drinking water service.

Accordingly, since Gwangju citizens consider Mudeungsan provincial park as the symbol and pride of Gwangju, it is thought that if it is utilized as good tourism resource with natural protection, it will contribute to effect of employment and security of tax revene for local government as the economic side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ense of value of cultural and historical tradition by establishing exchanges and relationship with regional residents as the social and cultural side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증대는 사회체육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 산업사회는 주휴 2일제나 유급휴가에 의한 실질 노동 시간의 단축, 고학력화에 의한 취업시간의 단축, 정년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자유시간이 증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 및 기계문명의 발달은 산업공정의 기계화 및 조업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보다 풍부한 여가시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화생활 및 취미 생활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임번장, 2000). '일이 중요하다' 에서 '여가가 중요하다'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여가시간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국민들은 새로운 놀이문화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과 함께 하는 각종 레저스포츠는 변화 없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는 물론, 삶의 여유를 찾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저 스포츠 활동은 날씨나 계절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등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반면, 등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노인들은 등산 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무료한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등산 활동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조원용, 2004)고 하였고, 노인들이 즐거움 속에서 건강증진 내지 건강유지를 위한 등산 프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하여 체지방 43%, 근력 38%, 유연성 38%, 심폐지구력 13%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민경은, 1997)

또한 2000년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서 등산이 17.1%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종목으로 나타났다. 등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등산참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환경과 함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등산 형태가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등산참여자들의 다양해진 취향을 해소하고 계속 늘어나는 등산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 근교에 자리한 무등산도립공원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이용만족에 관해 연구하여 향후 전개 될 수 있는 공원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설 개선 방안 제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자는 가족들과 가벼운 산행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모여 대자연 속에서 주말을 보내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광주 근교에 위치한 무등산 도립공원의 등산참여자를 위한 시설 수, 시설위치, 시설관리, 홍보활동 등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등산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무등산 도립공원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무등산을 방문한 등산참여자들의 개선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 있다.

3. 연구문제

1) 무등산 도립공원 시설 수, 시설위치, 시설관리, 홍보활동에 관한 등산참여자들의 전체 만족도는 어떠한가?

2)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시설 수, 시설위치, 시설관리, 홍보활동)은 등산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무등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등산로 및 시설 그리고 홍보 등에서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배경변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요인(성별, 연령, 학력, 직업, 수입), 독립변인으로는 이용형태 요인(등산분류, 등산빈도, 등산시간, 교통수단), 종속변인으로는 시설만족 요인(시설 수, 시설위치, 시설관리, 홍보활동)에 따른 관계구조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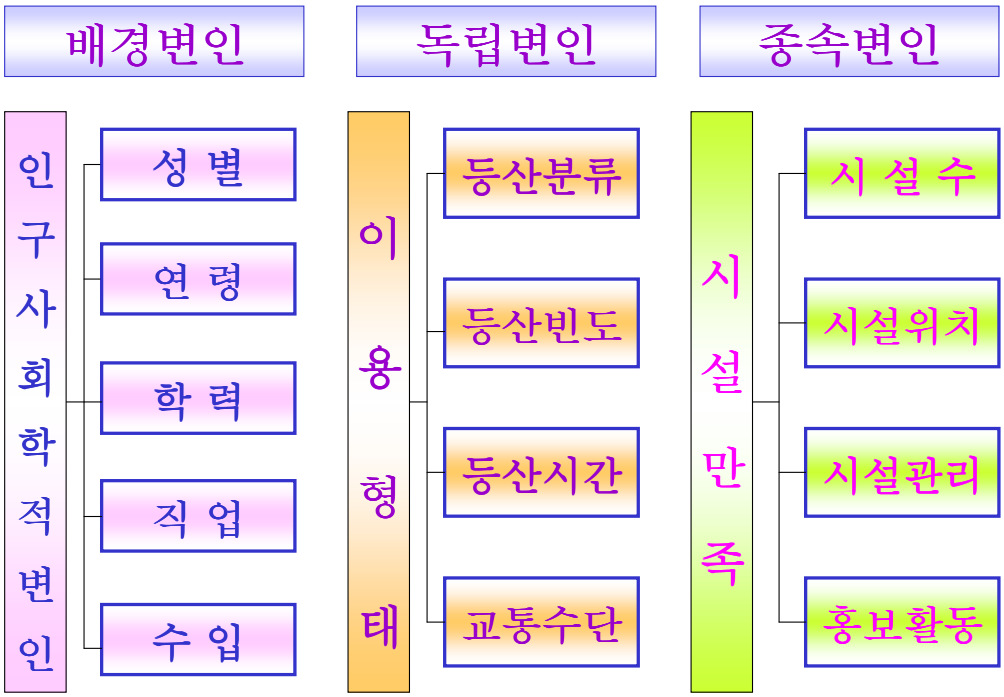

그림 1. 등산참여자의 이용형태와 시설만족의 관계구조모형

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도립공원 이용형태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도립공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시설만족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라 시설만족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무등산

1) 개관

무등산(武等山)은 광주광역시의 동쪽 가장자리와 담양, 화순에 걸쳐 우뚝 솟아 있는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으로 1972년 5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산세가 유순하고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보나 둥그스름한 모습이 한결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믿음직스럽고 후덕한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남도민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온 신산이다.

무등산은 광주 시내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충장로5가에서 정상까지 직선거리가 9.2㎞의 가까운 거리로서 대도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보기 드문 거봉(巨峰, 해발 1,187m)이라는 데서 광주의 자랑이 되고 있다.(박선홍, 1997)

2) 행정권역

(1) 무등산권의 총면적 중 광주시와 화순·담양이 약 60 : 40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으며, 총 16개 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2) GIS에 의한 소행정구역별 면적을 보면 학운동, 지원동, 청옥동, 충효동, 이서며, 고서면 등이 10%이상, 특히 충효동의 경우 약 21㎢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3) 화순·담양군에 해당하는 영역의 경우는 화순 1읍 1면 9리, 담양 2면 6리가 일부 혹은 전역이 포함되어 있음.

3) 무등산의 주능

무등산은 남북 주능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개의 가지 능선을 내는데 그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북능 : 정상 - 북봉 - 꼬막재로 이어져 지실마을에 이른다. 도중에 문필봉, 의상봉 쪽에 곁가지를 낸다.

(2) 북서능 : 정상 - 중봉 - 바람재(470m) - 향로봉 -장원봉 -잣고개를 넘어 망월동을 향함으로써 광주의 동쪽 담을 이룬다.

(3) 서능 : 정상 - 중봉 - 중머리재(608m)를 넘어 하나는 새인봉(학동방향)으로, 하나는 마집봉(2수원지 방향)으로 가지를 뻗는다.

(4) 남서능 : 정상 - 장불재 - 백마능선까지는 남북주능과 함께 달리다 도중에 가지를 낸다. 남서능은 만연산 - 수레바위산 - 너릿재를 지나 북쪽으로 되올라감으로써 봉선동을 향하게 되어 광주의 남쪽 담장을 이루는 중요한 산줄기인데, 이는 또한 극락강과 지석천을 가르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호남정맥은 세 번 솟는다. 다시 말해 시작인 장안산, 끝인 백운산, 그리고 한복판의 무등산에서 각각 1,000m가 넘는 용솟음을 한다. 전체적으로 뫼 '山' 字를 연상케하는 호남정맥 흐름의 중심에 솟아 그 아래 골짜기마다 맑고 깊은 물을 품어 광주의 젖줄 노릇을 하는 무등산은 그 위치나 산세에서부터 으뜸으로 도시를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인 것이다.

4) 무등산 등산로 현황

<표 1> 무등산 등산로 현황

번호	등산로 구간	연장(㎞)	비고
1	공원 관리사무소-꼬막재-규봉암-장불재	8.3	
2	공원 관리사무소-늦재삼거리-장불재	6.4	
3	늦재-동화사터-중봉하단 삼거리-용추삼거리	3.6	
4	장불재-입석대-서석대	0.9	
5	늦재삼거리-늦재-바람재-토끼등	1.7	
6	토끼등-봉황대-봉황대삼거리-백운암-중머리재	1.7	
7	증심교-토끼등-동화사	2.4	
8	증심사주차장-증심교-증심사입구-당산나무-중머리재-용추삼거리-장불재	5.1	
9	의재미술관-약사사-새인봉삼거리	1.2	
10	당산나무-천재단-봉황대삼거리	1.0	
11	증심사입구-봉황대	0.9	
12	증심사주차장-새인봉-새인봉삼거리-중머리재	3.8	
13	증심교-무당골입구-바람재	1.7	
14	전망대-장원봉-평두봉-바람재	4.8	
15	(구)대대본부정문-중봉-중봉하단삼거리	0.6	
16	무당골 입구-너덜겅 약수터	(0.7)	임시등산로
계	16개소(임시 1개소 포함)	44.1 (44.8)	

자료 : 광주광역시(2000.10). 광주광역시고시 제2000-116호

2. 도립공원의 개념

1) 도립공원의 지정

(1)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다.

(2)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 하여야 한다.

1970년 6월에 도립공원이 지정된 이래, 현재 <표 2>와 같이 22개 지경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총면적은 747.855㎢로서 전국토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더불어 자연보호 외에도 관광자원으로 이용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의 효과 및 지방자치제의 세원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탐방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적·역사적 전통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

<표 2> 도립공원 현황

단위:㎢

지정 도청	지정 순위	공원명	주 소	면 적	지정년월일
강원도	8	낙산	영양군 강현면 주청리	9.100	79.6.22
	17	경포	강릉시 저동	9.471	82.6.26
	20	태백산	태백시 소도동	17.440	89.5.13
경기도	2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36.447	71.3.17
경상남도	10	가지산	창원시 사림동	104.799	79.11.5
	19	연화산	고성군 성내리	28.717	83.9.29
경상북도	1	금오산	구미시 남통동	37.910	70.6.1
	14	팔공산	칠곡순 문경읍 상초리	122.073	80.5.13
	16	문경새재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300	81.6.4
	18	청량산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48.760	582.8.21
충청남도	5	덕산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1.045	73
	6	칠갑산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32.542	73.3.6
	15	대둔산	논산시 벌곡면 수랑리	24.856	50.5.22
전라북도	3	모악산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42.220	71.12.2
	7	대둔산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38.100	77.3.23
	9	마이산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16.900	79.10.16
	13	선운산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3.700	79.12.27
전라남도	4	무등산	광주시 북구 금곡동	30.230	72.5.22
	11	조계산	순천시 장천동	27.380	79.12.26
	12	두륜산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33.390	79.12.26
	21	팔영산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9.881	98.7.30
	22	천관산	장흥군 관산읍	7.594	98.10.13
		22개소		747.855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국립공원관리공단.

2) 도립공원의 선정기준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선정기준은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토지 소유 등으로서 그 내용은 <표 3> 와 같으며, 자연경관 60% 문화경관 15%, 지형보존과 토지소유 각각 10%, 위치 및 이용편의 5%의 비중으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자연공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3> 자연공원 지정기준

구 분	비 율	기 준
자연경관	60%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할 것
문화경관	15%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10%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파괴될 우려도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5%	지역별 균형적인 배치와 국민의 공원탐방권역을 고려할 것
토지소유	10%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에 사유지의 면적이 적을 것

자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 1999.

3) 도립공원의 구역설정

도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 대하여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구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통상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결정된다. 첫 번째는 도립공원의 실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라는 조건으로서 그 범위를 확정함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도립공원 후보지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관 구에 따라 설정된다. 단

둘이상의 경관구가 근접하여, 이용 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기서 쌍방의 경관 가치가 유사한 경우 둘 이상의 경관 구를 합쳐서 하나의 도립공원 후보지의 구역으로서 관점으로부터 설정하는 방법이다.

도립공원구역 내에서는 공원 목적을 위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가 실시된다. 목재의 벌채나 공작물의 신축 등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곤란한 토지나 그러한 필요가 없는 지역은 구역으로 제외시켜야 한다. 또 보호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용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지역은 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 도립공원의 자연보호 및 이용 계획

(1) 보호계획

보호계획으로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어느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보호를 위한 규제계획이 있다.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를 위해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공원을 5개의 용도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즉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나누고 있는데, 자연 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또는 경관이 특별히 아름답거나 특별히 보호 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경이며,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는 취락의 밀집도로서 구분하며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자연공원의 보호,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이다. 각지구의 정의와 허용행위는 <표 4~5>와 같다.

<표 4>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정의 및 허용행위

구분	정 의	허 용 행 위
자연보존지구	- 물자양성이 풍부한곳 - 자연생태계가 특히 풍부한 곳 -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1. 학술 연구 또는 자연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3.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수자원보호 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4. 문화체육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증축·개축·재축·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 지구의 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2.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3.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영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4.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임도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육림·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과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6.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7.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호안·방화·보호시설 등의 설치

<표 5>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정의 및 허용행위 계속

구분	정 의	허 용 행 위
자연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1.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주민의 생활환경조성 행위 3. 자연취락지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4. 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밀집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1.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2. 집단시설지구를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개축 및 재축

자료 : 자연공원법. 2002.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의 계획에는 <표 6>에서 보듯이 보호를 위한 시설계획과 이용을 위한 시설계획이 있는데 보호를 시설계획으로는 경관과 경관요소의 보호, 공원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 어떠한 종류, 어느 정도 규모의 보호시설을 계획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설의 내용으로 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재해와 공원이용자의 과잉 이용에 의하여 자연식생이 멸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식생활 복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복원된 식생도 포함한다).

② 공원 내 수역(水域)에서 어족(魚族)의 보존(保存), 또는 증식을 하기 위한 시설

③ 사방시설(砂防施設)

④ 방화대 등의 방화시설

이외에도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제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보전지구와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천연지구가 중복되어 자연공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표 6> 자연공원의 시설계획별 일람표

분 류	종 류	
보호를 위한 시설	식생복원시설, 사방시설, 동물번식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운송시설	도로, 선박, 로프웨이, 케이블카, 항공기, 주차장, 차고, 급유시설, 엘리베이터
	숙박시설	숙박(호텔, 유스호스텔 등), 산장, 야영장
	운동시설	산책(자연연구로, 보도), 자유공지, 스키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주유장(舟遊場), 승마시설
	원지시설	전망원지, 수경원지, 피크닉원지, 보존원지, 휴게소, 전망대, 야외극장
	위생시설	의료구급시설, 공중욕장, 공중화장실, 오물처리시설
	교화시설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야외무대, 비지터센터
	그 외 시설	간역시설(지도 표, 표지), 통신시설

자료 : 권상준 외. 1999. 환경조경학의 이해 p 321. 문운당

(2) 이용계획

도립공원은 본래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서 자연관찰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곳이므로 도시적인 혼잡, 소음, 쓰레기 등의 공해가 발생하는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공원은 광대(廣大)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은 주변환경의 보호와 이용계통(利用系統)과 관련하여 이용 장소의 적부(適否)등의 이유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용거점지가 한정(限定)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계획으로서 규제계획은 한정된 이용거점지에 관하여 이용방법에 대한 기준과 수용력을 자연적 조건, 이용현황 등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산정(算定)하여 시설의 배치, 규모 등 이용형태에 관련하여 규제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공원에 관한 적정수용력(適正收容力:carrying capacity)의 산정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는데 자연공원법상 사업결정의 단계에서 시설의 위치, 규모에 의지하고 있다.

이용을 위한 시설계획으로는 자연탐방, 등산, 야영, 스키 등 다양한 이용 형태에서 각각 자연공원에 어울리는 이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적인 시설의 정비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하기 위한 집단시설지구, 도로 등 시설의 배치와 정비방침을 정하는 계획이다.(심재시, 2003)

3. 등산의 운동효과

등산의 운동 효과는 크게 심폐기능 향상, 근력강화, 정신적 만족감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등산 초보자 38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3~4회(한 번에 2시간 이내) 등산을 6~18개월 시킨 후, 심박출량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심박출량이 등산 시작 전에 비해 1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을 하면 체중부하로 인해 골격계에 자극을 주어 골 밀도를 향상시키며

오르막과 내리막은 근육 강화에 매우 좋다. 특히 최대량의 75% 정도의 힘으로 장시간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력보다 근지구력 향상효과가 크다. 따라서 종일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는 직장인이 만성 피로감을 줄이는데 유용하다.

자연과 더불어 신선한 산소를 마심으로써 정신적·심리적 정화(淨化)효과가 대단하다. 다른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산행시 분비되는 뇌내 호르몬은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등산한 다음날 혈액 내의 베타 엔돌핀 양을 측정하면 그 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운동에 비해 소모되는 열량도 많다. 등산의 시간당 소모 열량은 600～1080㎉로 산보(120～300㎉), 빨리 걷기(360～420㎉), 수영 자유형(360～500㎉), 달리기(870㎉) 등에 앞선다. 한 예로 70㎏인 사람이 1시간 동안 산에 오른다면 약 735㎉를 사용, 1시간에 8～11㎞를 달리는 것과 맞먹는 운동효과를 낸다. 이는 통상적인 걷기(시속 3.2㎞)를 약 3시간 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하는 등산은 물론 건강에 좋지만 큰 운동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해야 비로소 운동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등산도 마찬가지. 따라서 주말에만 등산하는 사람들은 주중 3일 이상 한 번에 20～60분씩 달리기 등 비슷한 유산소운동을 해 주어야 등산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박원하, 2004).

4. 선행 연구

공원 이용자들의 이용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권구(1996)는 계룡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의 레크리에이션 기능과 국립공원 내의 자원시설, 공간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변수를 도출하고 공원 이용 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 이용후의 자연경관, 길, 시설, 전반적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경관이 “3.7795”, 길이 “3.0559”, 시설 “2.6149”, 전반적 시설은 “3.1242”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다. 자연경관의 만족도에 주는 변수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산, 계곡, 수목의 조화성 및 경관의 계절 변화 등이었다. 길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원 안내판의 체계성과 길의 폭과 포장 재료였으며, 시설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휴지통의 설치 위치와 수량으로 나타났다.

임란희(2001)는 만석공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용형태적 특성인 출발지, 도달시간, 교통수단, 이용횟수, 이용시간, 동반자, 시간활용내용, 활용장소 및 시설로 설정하였고, 만족도 요인으로는 시설물, 관리 상태, 자연경관, 직원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로는 출발지 “81.7%”로가 집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달시간은 10분이하가 48.2%, 교통수단은 도보가 53.1%, 이용횟수는 한달에 1～2회가 31.4%, 이용시간은 저녁시간으로 41.5%, 동반자 가족이나 친지가 48.2%, 시간활용으로는 휴식・산책이 50.0%, 활용장소 및 시설로는 나무그늘・벤치・잔디가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결과로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식수대와 화장실 부족, 관리상태는 벤치 파손으로 불편함을 호소, 직원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이용자들의 형태와 이용자들의 사회・경제학적 변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위의 선행 연구는 시설 만족 요인에 대한 평가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무등산 도립공원의 시설수의 만족도, 시설위치의 만족도, 시설관리의 만족도 홍보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무등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참여자들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5년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등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며, 유층집락무선표집법(systematic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대상은 300명이었으나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유효표본수는 286명(95.3%)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아래의 <표 7>와 같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문 항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성 별	남 자	136	47.6
	여 자	150	52.4
연 령	20세 이하	18	6.3
	21～30세 미만	23	8.0
	31～40세 미만	34	11.9
	41～50세 미만	62	21.7
	51～60세 미만	87	30.4
	61세 이상	62	21.7
학 력	중 졸	52	18.2
	고 졸	105	36.7
	대 졸	73	25.5
	대학원졸	48	16.8
	기 타	8	2.8
직 업	전문/자유직	41	14.3
	공무원/ 교원	73	25.5
	경영/관리직	22	7.7
	기능/숙련공	21	7.3
	사무/기술직	15	5.2
	학 생	24	8.4
	가정주부	75	26.2
	기 타	15	5.2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14	4.9
	101-150만원 이하	57	19.9
	151-200만원 이하	83	29.0
	201-250만원 이하	72	25.2
	251-300만원 이하	49	17.1
	301만원 이상	11	3.8
소요시간	30분 미만	8	2.8
	31분-1시간미만	66	23.1
	1시간-1시간30분	83	29.0
	1시간30분-2시간미만	72	25.1
	2시간 이상	57	19.9

2.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방환복(1999)의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설문지를 근거로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6문항, 이용형태에 관한 8문항, 시설 수에 관한 만족도 7문항, 시설위치에 관한 만족도 10문항, 시설관리에 관한 만족도 7문항, 홍보 활동에 관한 만족도 2문항 등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8> 설문지의 구성지표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 항 수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 연령, 학력, 직업, 수입 등	6
이용형태	분류, 경력, 횟수, 동반자, 요일 시간, 계절, 교통수단 등	8
시설만족	안내시설, 안전시설, 통신시설 등	7
	휴게시설, 주차시설, 약수터 등	10
	화장실, 등산로 등	7
	홍보활동 등	2
총 문항 수		40문항

등산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순위별로 점수화하기 위하여 각 항목을 Liket식 5점 척도로 “매우 만족하다”(5점), “만족하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불만족하다”(2점), “매우 불만족하다”(1점)로 하였다.

2) 타당도 검사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한다.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constructs)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인자 타당도(factorial validity)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증명하는 구성타당도의 형태(Allen & Yan, 1979)이므로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련된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9>~<표 12>는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이용형태와 시설만족에 대한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래의 <표 10>에 의하면 회전된 인자적재행열에 관한 8개 문항은 4개의 인자에 의해 8개 문항이 100%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와 동반자 문항 I-1, I-2, I-3는 인자 1, 경력, 횟수 문항 I-4, I-5는 인자 2, 요일, 시간, 계절 문항 I-6, I-7은 인자 3, 그리고 교통수단 문항 I-8은 인자 4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인자에 묶이는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인자 1을 등산분류, 인자 2는 등산빈도, 인자 3은 등산시간, 마지막으로 인자 4는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표 9> 이용형태 문항에 대한 고유값

고유값	2.421	0.862	0.642	0.415
차 이	1.456	0.236	0.222	0.275
비 율	0.555	0.212	0.162	0.101
누적비율	0.538	0.715	0.910	1.000

<표 10> 이용형태 문항에 대한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문항	인자 *1*	인자 *2*	인자 *3*	인자 *4*
I-1	***0.772***	0.138	0.127	0.159
I-2	***0.765***	0.133	0.014	0.114
I-3	***0.687***	-0.015	0.021	0.232
I-4	0.325	***0.568***	0.020	0.121
I-5	0.140	***0.512***	-0.126	0.294
I-6	-0.037	0.081	***0.531***	0.301
I-7	0.082	0.211	***0.501***	-0.071
I-8	0.209	0.307	0.176	***0.651***

문항 Ⅱ-1,2,3,4,10,11,12,13,22는 인자 1, Ⅱ-5,6,14,15,19,23은 인자 2, Ⅱ-7,17,20,24는 인자 3, 그리고 Ⅱ-8,18,25,26은 인자 4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인자에 묶이는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인자 1을 시설수, 인자 2를 시설위치, 인자 3은 시설관리, 마지막으로 인자 4는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표 11> 시설만족 문항에 대한 고유값

고유값	3.254	0.804	0.712	0.531
차 이	1.452	0.341	0.251	0.284
비 율	0.531	0.224	0.201	0.105
누적비율	0.542	0.748	0.901	1.000

<표 12> 시설만족 문항에 대한 회전된 인자적재행렬

문항	인자 *1*	인자 *2*	인자 *3*	인자 *4*
Ⅱ- 1	***0.751***	0.147	0.137	0.059
Ⅱ- 2	***0.765***	0.123	0.074	0.124
Ⅱ- 3	***0.687***	-0.005	0.024	0.312
Ⅱ- 4	***0.651***	0.224	0.021	0.111
Ⅱ- 5	0.200	***0.681***	-0.120	0.310
Ⅱ- 6	-0.007	***0.624***	0.364	0.214
Ⅱ- 7	0.081	0.108	***0.683***	-0.066
Ⅱ- 8	0.249	0.084	0.166	***0.619***
Ⅱ- 9	0.108	0.248	0.241	0.084
Ⅱ-10	***0.634***	0.128	0.109	0.075
Ⅱ-11	***0.612***	0.085	0.201	0.161
Ⅱ-12	***0.609***	0.111	0.017	0.214
Ⅱ-13	***0.604***	0.107	0.012	0.079
Ⅱ-14	0.102	***0.601***	-0.105	0.106
Ⅱ-15	0.098	***0.594***	0.110	0.121
Ⅱ-16	0.075	0.312	0.213	-0.107
Ⅱ-17	0.064	0.301	***0.627***	0.098
Ⅱ-18	0.127	0.213	0.101	***0.609***
Ⅱ-19	-0.102	***0.524***	0.121	0.211
Ⅱ-20	0.101	0.120	***0.603***	0.143
Ⅱ-21	-0.075	-0.127	0.113	0.130
Ⅱ-22	***0.597***	0.089	-0.101	0.114
Ⅱ-23	0.117	***0.536***	0.124	0.098
Ⅱ-24	0.012	0.102	***0.581***	0.091
Ⅱ-25	0.045	0.127	0.211	***0.542***
Ⅱ-26	0.141	0.017	0.321	***0.534***

3) 신뢰도 검사

본 연구의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과 관계가 있으며, 조작된 정의나 지표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Cronbach-α계수를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검증은 검사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등산참여자들에 대한 이용만족에 관한 26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0.701로 이들 문항이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을 측정하는데 신뢰 할 수 있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표 13>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Cronbach's α 계수

문항	문항과의 상관계수	α 계수
Ⅱ- 1	0.456	0.683
Ⅱ- 2	0.448	0.657
Ⅱ- 3	0.146	0.711
Ⅱ- 4	0.334	0.676
Ⅱ- 5	0.351	0.673
Ⅱ- 6	0.362	0.671
Ⅱ- 7	0.382	0.667
Ⅱ- 8	0.476	0.652
Ⅱ- 9	0.233	0.695
Ⅱ-10	0.401	0.664
Ⅱ-11	0.512	0.687
Ⅱ-12	0.458	0.713
Ⅱ-13	0.469	0.710
Ⅱ-14	0.421	0.704
Ⅱ-15	0.589	0.741
Ⅱ-16	0.514	0.701
Ⅱ-17	0.521	0.684
Ⅱ-18	0.459	0.694
Ⅱ-19	0.431	0.761
Ⅱ-20	0.412	0.614
Ⅱ-21	0.401	0.741
Ⅱ-22	0.384	0.789
Ⅱ-23	0.391	0.741
Ⅱ-24	0.478	0.721
Ⅱ-25	0.461	0.654
Ⅱ-26	0.413	0.759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1) 조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절차는 연구자를 포함한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질문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ered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자료처리 방법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SPSS 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구하고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Principle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이용형태와 시설만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에서 검증하였으며 유의한 차가 나올 경우에는 사후 검증으로 Duncan method를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 요인의 관계

아래의 <표 14>~<표 15>은 성별에 따른 이용형태 요인, 시설만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용형태 하위요인과 시설만족 p<.05~p<.001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모든 요인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등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148명)들 보다 남자(138명)들이 아직까지 직장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남성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산행에 관련된 행정정책도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표 14> 성별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이용형태	등산 분류	남성	138	3.12^{a}	.756	48.512	$.000^{***}$
		여성	148	3.11^{b}	.867		
		합계	286	3.12	.813		
	등산 빈도	남성	138	3.84^{a}	.877	51.358	$.000^{***}$
		여성	148	3.43^{b}	1.026		
		합계	286	3.64	.953		
	등산 시간	남성	138	2.51^{a}	1.123	11.412	$.002^{**}$
		여성	148	2.43^{b}	1.113		
		합계	286	2.48	1.120		
	교통 수단	남성	138	3.45^{b}	.764	.569	$.015^{**}$
		여성	148	3.47^{a}	.721		
		합계	286	3.46	.744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1, ***p<.001

<표 15> 성별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요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시설만족	시설수	남성	138	3.35[b]	.766	2.867	.048*
		여성	148	3.46[a]	.734		
		합계	286	3.40	.752		
	시설위치	남성	138	3.29[a]	.876	4.985	.016**
		여성	148	3.24[b]	.852		
		합계	283	3.26	.866		
	시설관리	남성	138	3.86[a]	.931	18.235	.000***
		여성	148	3.75[b]	.956		
		합계	283	3.80	.945		
	홍보활동	남성	138	3.18[b]	.727	1.651	.000***
		여성	148	3.54[a]	.714		
		합계	286	3.36	.722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5, **p<.01, ***p<.001

아래의 <표 16>~<표 17> 연령에 따른 이용형태 요인, 시설만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용형태 하위요인에서 등산빈도 요인을 제외한 등산분류, 등산시간, 교통수단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시설만족 하위 요인에서도 통계적 p<.05~p<.001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형태 하위요인인 등산빈도에서는 41~50세 미만에서 평균(3.8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등산시간에서 20세 이하일 때 가장 낮은 평균(2.51)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만족 하위요인인 시설위치에서는 51~60세 미만에서 평균(3.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관리요인에서는 31~40세 미만에서 가장 낮은 평균(2.32)이 나타났다.

<표 16> 연령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이용형태	등산 분류	20세 이하	14	3.12[b]	.831	45.312	.014**
		21~30세 미만	24	3.48[a]	.947		
		31~40세 미만	45	3.11[b]	1.032		
		41~50세 미만	69	3.09[b]	1.321		
		51~60세 미만	86	3.12[b]	.967		
		61세 이상	48	3.13[b]	1.654		
		합 계	286	3.18	1.264		
	등산 빈도	20세 이하	14	3.14	.932	43.324	.213
		21~30세 미만	24	3.25[b]	1.022		
		31~40세 미만	45	3.43[b]	1.101		
		41~50세 미만	69	3.84[a]	.932		
		51~60세 미만	86	3.64[a]	.993		
		61세 이상	48	3.02	.874		
		합 계	286	3.39	.921		
	등산 시간	20세 이하	14	2.51[b]	1.125	12.124	.012**
		21~30세 미만	24	2.87	1.341		
		31~40세 미만	45	2.43[b]	2.433		
		41~50세 미만	69	2.53[a]	.980		
		51~60세 미만	86	2.48[b]	1.134		
		61세 이상	48	2.55[a]	.936		
		합 계	286	2.56	.931		
	교통 수단	20세 이하	14	3.45[a]	.874	4.653	.045*
		21~30세 미만	24	3.11	.763		
		31~40세 미만	45	3.47[a]	.728		
		41~50세 미만	69	3.23[b]	.821		
		51~60세 미만	86	3.46[a]	.764		
		61세 이상	48	3.04	.812		
		합 계	286	3.29[b]	.853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5, **p<.01

<표 17> 연령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시설만족	시설수	20세 이하	14	2.57	.734	36.289	.000***
		21~30세 미만	24	2.87	.723		
		31~40세 미만	45	3.01[a]	.805		
		41~50세 미만	69	3.29[a]	.798		
		51~60세 미만	86	3.33[a]	.821		
		61세 이상	48	2.98[b]	.784		
		합 계	286	3.01	.764		
	시설 위치	20세 이하	14	3.45[a]	.832	38.674	.000***
		21~30세 미만	24	3.33[b]	.812		
		31~40세 미만	45	3.21[b]	.984		
		41~50세 미만	69	3.56[a]	1.102		
		51~60세 미만	86	3.82	1.213		
		61세 이상	48	3.12	.984		
		합 계	286	3.42	1.069		
	시설 관리	20세 이하	14	2.76[a]	1.123	21.345	.010**
		21~30세 미만	24	2.64	1.431		
		31~40세 미만	45	2.32[b]	1.113		
		41~50세 미만	69	2.48[b]	.986		
		51~60세 미만	86	2.78[a]	1.020		
		61세 이상	48	2.81[a]	1.213		
		합 계	286	2.63	.954		
	홍보 활동	20세 이하	14	3.61	.1.034	7.893	.023*
		21~30세 미만	24	3.18[b]	1.124		
		31~40세 미만	45	3.38[a]	.984		
		41~50세 미만	69	3.33	1.975		
		51~60세 미만	86	3.42[a]	.923		
		61세 이상	48	3.14[b]	1.452		
		합 계	286	3.34	1.351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5, **p<.01, ***p<.001

아래의 <표 18>~<표 19>은 학력에 따른 이용형태 요인, 시설만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용형태 하위요인에서 등산빈도 요인, 등산시간 요인을 제외한 등산분류, 교통수단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시설만족 하위 요인에서도 통계적 p<.01~p<.001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형태 하위요인인 교통수단에서는 대학원 졸에서 평균(3.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등산분류에서 고등학교 졸업일 때 가장 낮은 평균(2.58)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만족 하위요인인 홍보활동에서는 중학교 졸업에서 평균(4.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관리요인에서는 고등학교 졸에서 가장 낮은 평균(2.84)이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직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많은 직업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영세사업장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학력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이용형태	등산 분류	중학교 졸	47	3.31[a]	.892	35.542	.000***
		고등학교 졸	115	2.58	.876		
		대학교 졸	69	3.21[b]	.858		
		대학원 졸	50	3.15[b]	.866		
		기 타	5	3.38[a]	.921		
		합 계	286	3.13	.883		
	등산 빈도	중학교 졸	47	3.12[b]	.961	34.321	.312
		고등학교 졸	115	3.18[b]	.951		
		대학교 졸	69	3.25[a]	1.103		
		대학원 졸	50	3.31[a]	1.121		
		기 타	5	3.26[a]	1.152		
		합 계	286	3.23	1.063		
	등산 시간	중학교 졸	47	3.42[b]	.853	16.943	.115
		고등학교 졸	115	3.73[a]	.815		
		대학교 졸	69	3.96[a]	.945		
		대학원 졸	50	3.28[b]	.843		
		기 타	5	2.95[a]	.853		
		합 계	286	3.47	.861		
	교통 수단	중학교 졸	47	3.64[a]	.951	7.803	.010**
		고등학교 졸	115	3.32[b]	.811		
		대학교 졸	69	3.67[a]	1.964		
		대학원 졸	50	3.87[a]	1.567		
		기 타	5	3.12[b]	.954		
		합 계	286	3.52	1.251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1, ***p<.001

<표 19> 학력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시설만족	시설수	중학교 졸	47	2.98[b]	.793	9.369	.000***
		고등학교 졸	115	3.78[a]	1.055		
		대학교 졸	69	3.95[a]	.873		
		대학원 졸	50	4.23[a]	1.005		
		기 타	5	3.13[b]	.897		
		합 계	286	3.61	.921		
	시설위치	중학교 졸	47	3.35[b]	.813	23.563	.010**
		고등학교 졸	115	3.38[b]	.974		
		대학교 졸	69	3.56[a]	.957		
		대학원 졸	50	3.43[a]	1.124		
		기 타	5	3.23[b]	1.010		
		합 계	286	3.39	.982		
	시설관리	중학교 졸	47	3.12[b]	.923	5.248	.011**
		고등학교 졸	115	2.84	1.030		
		대학교 졸	69	3.67[a]	1.068		
		대학원 졸	50	3.23[b]	.755		
		기 타	5	3.52[a]	.688		
		합 계	286	3.28	.893		
	홍보활동	중학교 졸	47	4.67[a]	.652	33.451	.000***
		고등학교 졸	115	3.98[b]	.688		
		대학교 졸	69	4.56[a]	.719		
		대학원 졸	50	4.33[b]	1.975		
		기 타	5	3.89	.923		
		합 계	286	4.29	.994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1, ***p<.001

아래의 <표 20>~<표 21> 직업에 따른 이용형태 요인, 시설만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용형태 하위요인에서 등산분류 요인, 등산빈도 요인, 등산시간 요인, 교통수단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시설만족 하위요인에서도 통계적 p<.01~p<.001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형태 하위요인인 등산시간에서는 공무원/교원에서 평균(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산분류에서 공무원/교원이 가장 낮은 평균(2.73)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만족 하위요인인 시설위치에서는 공무원/교원에서 평균(3.9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 수 요인에서는 기타에서 가장 낮은 평균(2.15)이 나타났다.

<표 20> 직업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이용형태	등산 분류	전문직/자유직	41	3.21	1.904	55.214	.000***
		공무원/교원	73	2.73	.984		
		경영/관리직	22	3.31	.887		
		기능/숙련공	21	3.51	.954		
		사무/기술직	15	3.16	.874		
		학 생	24	3.19	.994		
		가정주부	75	3.28	.951		
		기 타	15	2.98	1.075		
		합 계	286	3.17	1.084		
	등산 빈도	전무직/자유직	41	3.51	.965	46.217	.011**
		공무원/교원	73	3.24	1.673		
		경영/관리직	22	3.11	1.531		
		기능/숙련공	21	3.29	.984		
		사무/기술직	15	3.93	.678		
		학 생	24	3.31	1.011		
		가정주부	75	3.67	2.893		
		기 타	15	3.24	.865		
		합 계	286	3.41	1.334		
	등산 시간	전무직/자유직	41	3.66	2.642	56.345	.000***
		공무원/교원	73	3.98	2.898		
		경영/관리직	22	3.67	1.586		
		기능/숙련공	21	3.36	.995		
		사무/기술직	15	3.77	1.098		
		학 생	24	3.32	.958		
		가정주부	75	4.51	3.214		
		기 타	15	3.05	.921		
		합 계	286	3.67	1.792		
	교통 수단	전무직/자유직	41	2.96	.774	6.537	.031*
		공무원/교원	73	3.34	.784		
		경영/관리직	22	3.21	.752		
		기능/숙련공	21	3.07	.712		
		사무/기술직	15	3.11	.723		
		학 생	24	3.12	.724		
		가정주부	75	3.04	.716		
		기 타	15	3.13	.721		
		합 계	286	3.12	.742		

*p<.05, **p<.01, ***p<.001

<표 21> 직업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시설만족	시설수	전무직/자유직	41	2.58	.763	8.269	.000***
		공무원/교원	73	3.42	.955		
		경영/관리직	22	3.44	.958		
		기능/숙련공	21	2.98	.787		
		사무/기술직	15	2.61	.747		
		학 생	24	2.89	.771		
		가정주부	75	3.68	.994		
		기 타	15	2.15	.721		
		합 계	286	2.97	.843		
	시설위치	전무직/자유직	41	3.89	.917	12.412	.013**
		공무원/교원	73	3.99	1.765		
		경영/관리직	22	3.65	1.568		
		기능/숙련공	21	3.21	.957		
		사무/기술직	15	3.04	911		
		학 생	24	3.47	1.014		
		가정주부	75	3.95	1.732		
		기 타	15	3.13	.943		
		합 계	286	3.54	114.99		
	시설관리	전무직/자유직	41	3.54	.886	6.268	.011**
		공무원/교원	73	3.76	1.987		
		경영/관리직	22	3.25	.967		
		기능/숙련공	21	3.27	.885		
		사무/기술직	15	3.19	.779		
		학 생	24	3.55	1.785		
		가정주부	75	3.77	.825		
		기 타	15	3.12	.935		
		합 계	286	3.43	1.133		
	홍보활동	전무직/자유직	41	3.11	.752	.987	.000***
		공무원/교원	73	3.76	.865		
		경영/관리직	22	3.31	.779		
		기능/숙련공	21	3.14	.768		
		사무/기술직	15	3.23	.821		
		학 생	24	3.81	.897		
		가정주부	75	3.88	.912		
		기 타	15	3.43	.772		
		합 계	286	3.40	.828		

**p<.01, ***p<.001

아래의 <표 22>~<표 23>는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형태 요인, 시설만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용형태 하위요인에서 교통수단 요인을 제외한 등산

분류 요인, 등산빈도 요인, 등산시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시설만족 하위 요인에서도 통계적 $p<.05 \sim p<.001$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용형태 하위요인인 등산빈도에서는 101만원-150만원 이하에서 평균(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산시간에서는 251만원-300만원 이하에서 가장 낮은 평균(3.01)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만족 하위요인인 시설위치에서는 201만원-250만원 이하에서 평균(3.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관리요인에서는 201만원-250만원 이하에서 가장 낮은 평균(2.56)이 나타났다.

<표 22>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이용형태	등산 분류	100만원 이하	14	3.21	.773	11.543	.05*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3.57	.827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3.84	.864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3.65	.873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3.38	.781		
		301만원 이상	11	3.32	.725		
		합 계	286	3.50	.818		
	등산 빈도	100만원 이하	14	3.54^{B}	.874	9.761	.001***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3.98^{A}	.887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3.77	.853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3.65^{A}	.819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3.41	.833		
		301만원 이상	11	3.21^{B}	.893		
		합 계	286	3.59	.865		
	등산 시간	100만원 이하	14	3.12^{A}	.689	12.216	.010**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3.23^{B}	.721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3.35	.751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3.27^{B}	.893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3.01	.812		
		301만원 이상	11	3.11^{B}	.789		
		합 계	286	3.18	.784		
	교통 수단	100만원 이하	14	3.67	.751	1.763	.151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3.72	.788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3.81	.821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3.78	.796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3.62	.752		
		301만원 이상	11	3.27	.718		
		합 계	286	3.65	.773		

*p<.05, **p<.01, ***p<.001

<표 23> 월평균소득에 따른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의 비교

변인	하위요인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시설만족	시설수	100만원 이하	14	3.44	1.214	15.261	.015**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3.27	1.251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3.89	.947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3.65	.977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3.31	.914		
		301만원 이상	11	3.12	.907		
		합 계	286	3.45	1.03		
	시설 위치	100만원 이하	14	3.52[B]	.911	16.053	.011**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3.75[A]	.997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3.88	1.317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3.91[A]	1.116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3.89	.935		
		301만원 이상	11	3.59[B]	.932		
		합 계	286	3.76	1.032		
	시설 관리	100만원 이하	14	2.62[A]	.943	8.942	.000***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2.83[B]	.639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2.94	.863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2.56	.932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2.65	.954		
		301만원 이상	11	2.86[B]	.891		
		합 계	286	2.74	.876		
	홍보 활동	100만원 이하	14	3.51	1.451	14.903	.043*
		101만원-150만원 이하	57	3.48	1.231		
		151만원-200만원 이하	83	3.78	1.452		
		201만원-250만원 이하	72	3.88	2.762		
		251만원-300만원 이하	49	3.48	.984		
		301만원 이상	11	3.82	1.093		
		합 계	286	3.66	1.503		

*p<.05, **p<.01, ***p<.001

2. 무등산 도립공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관계

아래의 <표 24>는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이용형태에 관련된 8개 문항에 대한 인자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4개의 요인, 즉 등산분류, 등산빈도, 등산시간, 교통수단에 대한 등산참여자들의 이용방법과 정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 결과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이용형태에 대한 등산시간 요인을 제외한 3개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등산분류에 대한 관심, 등산시간 요인과 교통수단 요인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등산빈도 요인에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는 이용형태에 대한 등산빈도 요인을 제외한 3개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등산 형태에 대한 관심에서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교통수단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41-50세에서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비교에서는 교통수단을 제외한 다른 3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서 등산빈도 요인에 대한 관심, 등산분류 요인, 등산시간 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이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비교에서는 등산분류 요인, 등산빈도 요인, 등산시간 요인, 교통수단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등산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무등산 도립공원을 자연보호 외에도 관광자원으로 이용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 및 지방자치제의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외지 탐방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적·역사적 전통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2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등산참여자들의 이용형태에 관한 분산분석

문항	구분	등산분류요인			등산빈도요인			등산시간요인			교통수단요인		
		평균	*t*	*p*	평균	*t*	*p*	평균	*t*	*p*	평균	*t*	*p*
성별	남 자	3.668	22.31	0.000	3.715	5.38	.020	3.368	1.46	.227	3.09	9.40	.002
	여 자	3.448			3.823			3.303			2.940		
연령	20세 이하	3.445^{B}	2.60	0.035	3.769^{B}	1.50	.201	3.217^{B}	4.46	.001	2.945^{A}	3.95	.003
	21-30세	3.613^{B}			3.780^{B}			3.455^{B}			3.044^{A}		
	31-40세	3.588^{B}			3.778^{B}			3.303^{B}			3.004^{A}		
	41-50세	3.512^{B}			3.912^{A}			3.294^{B}			3.320^{A}		
	51-60세	3.873^{A}			3.843^{A}			3.985^{A}			3.432^{B}		
	60세 이상	3.866^{A}			3.866^{A}			4.000^{A}			2.400^{B}		
학력	중 졸	3.372^{B}	8.41	0.001	3.709^{B}	2.76	.027	3.362^{A}	4.36	.001	2.922	1.91	.106
	고 졸	3.789^{A}			3.864^{A}			3.548^{A}			3.077		
	대 졸	3.587^{A}			3.810^{B}			3.267^{B}			3.011		
	대학원졸	3.465^{B}			3.611^{B}			3.341^{A}			3.175		
	기 타	3.387^{B}			3.629^{B}			3.027^{B}			2.972		
직업	전문/자유직	3.490^{B}	4.00	.045	3.737^{A}	1.21	.271	3.287^{B}	1.69	.193	2.991^{c}	0.49	.482
	공무원/교원	4.126^{A}			3.712^{A}			3.679^{A}			3.542^{A}		
	경영/관리직	3.267^{c}			3.321^{c}			3.245^{c}			3.321^{B}		
	기능/숙련공	3.312^{c}			3.297^{c}			3.256^{B}			2.878^{c}		
	사무/기술직	3.521^{B}			3.011			3.211^{c}			3.326^{B}		
	학 생	3.585^{B}			3.615^{B}			3.286^{B}			3.562^{A}		
	가정주부	3.984^{A}			3.689^{B}			3.579^{A}			3.586^{A}		
	기타	3.331^{c}			2.653			2.783^{A}			$2,904^{c}$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3.407^{B}	5.37	.000	3.581^{B}	6.13	.000	3.439^{A}	0.86	.010	3.123^{A}	3.45	.004
	101-150만원 이하	3.413^{B}			3.688^{A}			3.408^{A}			2.854^{B}		
	151-200만원 이하	3.630^{B}			3.871^{A}			3.362^{B}			2.954^{B}		
	201-250만원 이하	3.567^{B}			3.724^{A}			3.370^{B}			3.158^{A}		
	251-300만원 이상	3.709^{A}			3.929^{A}			3.544^{A}			3.124^{A}		
	301만원 이상	3.753^{A}			3.584^{B}			3.329^{B}			2.947^{B}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 C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5, **p<.01, ***p<.001

아래의 <표 25>은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이용형태에 관한 4개의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시설 수 요인에 따른 비교에서는 시설 수 요인에 대한 등산 분류를 제외한 다른 등산빈도, 등산시간, 교통수단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위치에 따른 비교에서는 등산빈도 요인을 제외한 등산 분류, 등산시간, 교통수단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와 홍보활동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안내시설에서 등산분류(3.768), 교통수단(3.741), 등산빈도(3.634) 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등산객들의 안내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등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표 25> 이용형태에 따른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한 분산분석

문항	구분	등산분류요인			등산빈도요인			등산시간요인			교통수단요인		
		평균	*F*	*p*	평균	*F*	*p*	평균	*F*	*p*	평균	*F*	*p*
시설수	안내시설	3.768^{A}	23.21	.210	3.634^{A}	6.28	.010	3.432^{A}	2.38	.011	3.741^{A}	8.54	.000
	안전시설	3.648^{B}			3.423^{B}			3.123^{B}			3.542^{B}		
	통신시설	2.867^{A}			3.210^{B}			2.947^{B}			2.746^{A}		
시설위치	휴게시설	3.151^{B}	2.14	.011	3.614^{A}	1.69	.121	3.217^{B}	5.46	.000	3.515^{A}	4.56	.000
	주차시설	3.485^{A}			3.691^{A}			3.455^{A}			3.141^{A}		
	약 수 터	2.856^{B}			3.014^{B}			2.879^{B}			2.254^{B}		
시설관리	화 장 실	3.421^{B}	7.56	.000	3.651^{A}	2.34	.034	3.219^{A}	4.28	.001	3.014^{B}	2.017	.01
	등 산 로	3.513^{A}			3.327^{B}			3.347^{B}			3.215^{A}		
홍보활동	홍보활동	3.384	5.12	.020	3.361	1.38	.021	3.014	2.85	.121	3.254	0.05	.04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 C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1, ***p<.001

아래의 <표 26>는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 분석한 결과이다. 이용형태와 시설만족에 따른 비교에서 이들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형태에서는 계절(3.413)과 교통수단(3.375)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경력과 동반자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시설만족에서는 시설 수(3.372)와 홍보활동(3.348)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시설관리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앞으로 계절이나 교통수단을 고려한 등산로 개방과 등산로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력기구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앞으로 많은 등산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시설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관한 관리와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 무등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참여자들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표 26>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한 분산분석

문 항	구 분	평 균	*F*	*p*
이용형태	분 류	3.431^{A}	3.84	.000***
	경 력	3.058^{B}		
	횟 수	3.106^{B}		
	동반자	3.064^{B}		
	요 일	3.362^{A}		
	시 간	3.185^{B}		
	계 절	3.413^{A}		
	교통수단	3.375^{A}		
시설만족	시 설 수	3.372^{A}	3.44	.011**
	시설위치	3.254^{B}		
	시설관리	3.223^{B}		
	홍보활동	3.348^{A}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A, B, C와 같은 문자는 평균이 같음. **p<.01, ***p<.001

아래의 <표 27>은 이용형태와 시설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들 5개의 하위요인 간에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위요인은 홍보활동 - 시설만족(상관계수= .586)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산참여자들의 등산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설만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하위요인은 시설수 - 이용만족(상관계수= .486), 시설위치 - 시설수(상관계수= .4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산하는 이용자들은 홍보활동을 통해 무등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홍보활동에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은 무등산 관리사무소나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7> 이용형태 하위요인, 시설만족 요인간의 상관계수

하위요인	시설만족	시설수	시설위치	시설관리	홍보활동
시설만족	1.00				
시설수	.486*	1.00			
시설위치	.437**	.459**	1.00		
시설관리	.321**	.456**	.224**	1.00	
홍보활동	.586**	.319**	.362**	.312**	1.00

3.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관계

아래의 <표 28>은 조사대상자의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이용형태에 관한 빈도분석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분류에서는 일반 등산인이(66.1%)로 전문 등산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에서 1년 이하(30.8%)에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건강을 위해 일반 등산 인들이 등산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반자에서는 동료(36.0%)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일에서는 토요일이(43.7%)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는 직장동료들이나 등산에 관심 있는 등산동호회 등을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토요일에 등산에 참여하고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1~2시간 미만(57.3%)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계절은 봄에서(38.8%)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등산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무리하지 않고 한두 시간 정도 등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등산하기에 적당한 봄철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에서는 대중교통(61.5%)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자가용 이용자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산참여자들이 많은 것은 등산의 특성상 등반하는 길로 되돌아오는 등산참여자 보다는 되돌아오지 않은 등산참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연인과 친지 그리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독특한 정신세계와 육체적 건강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8> 조사대상자의 이용형태에 관한 빈도분석

문 항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분 류	전문등산인	97	33.9
	일반등산인	189	66.1
경 력	1년 이하	88	30.8
	2년 미만	67	23.4
	3년 미만	43	15.0
	4년 미만	38	13.3
	5년 미만	27	9.4
	6년 이상	24	8.4
동반자	혼 자	94	32.9
	가족이나 친지	36	12.6
	친구나 연인	49	17.1
	동 료	103	36.0
	기 타	3	1.0
요 일	평 일	46	16.1
	토요일	125	43.7
	일요일	89	31.1
	요일에 관계없음	26	9.1
시 간	1시간 이하	33	11.5
	1~2시간 미만	164	57.3
	2~3시간 미만	55	19.2
	3~4시간 미만	17	5.9
	4~5시간 미만	10	3.5
	5시간 이상	7	2.4
계 절	봄	111	38.8
	여 름	25	8.7
	가 을	92	32.2
	겨 울	43	15.0
	계절에 관계없음	15	5.2
교통수단	대중교통	176	61.5
	승용차	91	31.8
	기 타	19	6.6

아래의 <표 29>는 조사대상자의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한 빈도분석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시설 수에서는 안전시설(51.0%)과 안내시설(42.3%)에서는 높은 빈도수를 보여 등산참여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시설에서는 낮은 빈도수를 보여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통신시설인 공중전화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위치에서는 주차시설(51.0%)과 휴게시설(26.6%)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약수터에서는 낮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등산참여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보건위생에 청결한 약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시설관리에서는 등산로(55.9%)시설에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장실에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청결하고 더 많은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홍보활동에서는 홍보활동(60.1%)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중매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9> 조사대상자의 시설만족에 관한 빈도분석

문 항	구 분	빈도수(N)	백분율(%)
시설수	안내시설	121	42.3
	안전시설	146	51.0
	통신시설	21	7.3
시설위치	휴게시설	76	26.6
	주차시설	146	51.0
	약수터	64	22.4
시설관리	화장실	126	44.1
	등산로	160	55.9
홍보활동	홍보활동	172	60.1
	대중매체	114	39.9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 무등산 도립공원에서 등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유층집락무선표집(systematic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방법에 의해 표집하여 등산참여자 300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286(9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배경변인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6문항, 독립변인인 이용형태에 관한 8문항, 종속변인인 시설 수에 관한 만족도 7문항, 시설위치에 관한 만족도 10문항, 시설관리에 관한 만족도 7문항, 홍보 활동에 관한 만족도 2문항 등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정결과 시설만족 요인인 α=.701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통계 프로그램 SPSS 10.1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가 나올 경우에는 사후 검증으로 Duncan method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자료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도립공원 이용형태 요인의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무등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1-50세 미만과 51-60세 미만에서 등산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등산시간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교원들이 등산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시설위치나 시설 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립공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결과 남자는 등산분류, 등산시간, 교통수단 요인에서 여자는 등산빈도 요인에서 높은 관심과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등산분류, 등산시간, 등산빈도 요인에서 높은 인식과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결과, 경력이 낮은 일반 등산참여자들이 동반자들과 함께 가벼운 산보나 산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동료들이 등산에 관심 있는 동호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산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수나 시설위치에서 높은 이용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참여자들은 약수터와 화장실을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갖추는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무등산 도립공원을 광주의 상징이며 자존심이라고 시민들이 관습적으로 느끼고 있으므로 자연보호 외에도 관광자원으로 이용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 및 지방자치제의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외지 탐방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적·역사적 전통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제언

본 연구는 설문 설계를 적용한 현장 연구로서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와 시설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무등산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라 시설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자가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형태 가운데 가정주부가 건강조절을

위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기와 타당성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본 연구는 무등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무등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국립공원별, 지역별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광주광역시(2000). **광주광역시고시 자료**.

김동욱(2004). 여성의 여가 스포츠활동 참여 만족도 . 석사학위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김우겸(1998). **월간 산**. 9월호.

권상준 외(1999). **환경조경학의 이해**. 문운당.

명성호(1992). 성인 남자의 등산 중 에너지소비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관광부(200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자료.

민경은(1997). 등산이 60대 노인의 체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선홍(1997). **무등산**. 도서출판 금호문화.

박원하(2004). **월간 산**. 11월호.

박장근・이원희(2000). 광교산 등산시설의 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방환복(1999).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성봉주(1992). 대학산악부원과 일반대학생의 근력・근지구력 및 심폐지구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재시(2003). 이용자 의식조사를 통한 경포도립공원의 관리방안에 관한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권구(1996). 국립공원 이용자의 형태와 만족도 평가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란희(2001).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이용형태 및 만족도에 미치는 제요인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번장(2000). **사회체육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원용(2004). 노인의 등산 활동 참여가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시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는 이용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무등산 도립공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 .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홍재곤

Ⅰ. 귀하의 이용형태 대한 물음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등산인 분류는?

① 전문 등산인 ② 일반 등산인

2. 귀하의 등산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년 이하 ② 2년 미만 ③ 3년 미만

④ 4년 미만 ⑤ 5년 미만 ⑥ 6년 이상

3. 귀하는 무등산 도립공원을 월 몇 회 정도 등산을 하십니까?

(회)

4. 귀하의 등산 동반자는?

① 혼자 ② 가족이나 친지 ③ 친구나 연인

④ 동료 ⑤ 기타

5. 귀하의 등산 요일은?

① 평일 ② 토요일 ③ 일요일 ④ 요일에 관계없이

6. 귀하의 등산 시간은?

① 1시간 이하 ② 1~2시간미만 ③ 2~3시간미만

④ 3~4시간미만 ⑤ 4~5시간미만 ⑥ 5시간 이상

7. 귀하는 어느 계절에 많이 이용하십니까?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계절에 관계없이

8. 귀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

① 대중교통 ② 승용차 ③ 기타( )

Ⅱ. 다음 질문은 무등산 등산로와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의 해당되는 번호에 ∨를 해 주십시오.

문항번호	질 문 내 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1	안내시설의 수에 만족한다.	5	4	3	2	1
2	안전시설(난간, 와이어로프)의 수에 만족한다.	5	4	3	2	1
3	공중전화의 수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5	4	3	2	1
4	휴게시설(쉼터, 의자)은 수에 만족한다.	5	4	3	2	1
5	주차시설의 수는 적절하다.	5	4	3	2	1
6	약수터의 수에 만족한다.	5	4	3	2	1
7	화장실 시설의 수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5	4	3	2	1
8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5	4	3	2	1
9	쓰레기처리시설은 오물을 버리기 쉬운 장소에 위치해 있다.	5	4	3	2	1
10	안내시설의 위치는 눈에 쉽게 뜨이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	5	4	3	2	1
11	안전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에 적당한 위치에 있다.	5	4	3	2	1
12	공중전화의 위치는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	5	4	3	2	1

문항번호	질 문 내 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13	이동전화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5	4	3	2	1
14	휴게시설의 위치는 등산 코스를 잘 고려해서 배치되었다.	5	4	3	2	1
15	주차시설의 위치는 등산 접근로에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	5	4	3	2	1
16	약수터의 위치는 등산 접근로에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	5	4	3	2	1
17	화장실시설의 위치는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5	4	3	2	1
18	쓰레기처리시설(휴지통)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5	4	3	2	1
19	약수터의 수질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5	4	3	2	1
20	등산로는 제대로 보수 및 관리되고 있다.	5	4	3	2	1
21	안전시설은 제대로 보수 및 관리되고 있다.	5	4	3	2	1
22	안내시설은 제대로 보수 및 관리되고 있다.	5	4	3	2	1
23	주차시설은 제대로 관리자에 의해 질서있게 관리되고 있다.	5	4	3	2	1
24	화장실 시설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5	4	3	2	1
25	무등산 도립공원관리공단은 홍보활동에 충실하다.	5	4	3	2	1
26	TV나 라디오, 홍보책자를 통해서 무등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5	4	3	2	1

Ⅲ. 귀하의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대한 물음입니다.
해당번호에 ∨를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이하 ② 21～30세 ③ 31～40세

④ 41～50세 ⑤ 51～60세 ⑥ 61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⑤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교수, 의사, 변호사, 법조인, 언론인등) ② 공무원, 교원

③ 관리직(기업체 간부, 자영업체 경영자등) ④ 회사원

⑤ 공원 건설 기능직 ⑥ 학생 ⑦ 주부 ⑧ 기타( )

5.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① 100만원이하 ② 101만원～150만원미만 ③ 151～200만원미만

④ 201～250만원미만 ⑤ 251～300만원미만 ⑥ 301만원 이상

6. 귀하의 거주지에서 무등산 도립공원까지의 소요시간은 얼마입니까?

① 30분미만 ② 31분 ～1시간미만 ③ 1시간～1시간30분미만

④ 1시간 30분～2시간미만 ⑤ 2시간 이상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등산 도립공원 등산참여자들의 시설만족에 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2005년 무등산도립공원에서 등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층집락무선표집(systematic 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방법에 의하여 30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ered method)에 의거하여 실시하였고, 286(95.3%)명을 유효표본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0.1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가 나올 경우에는 사후 검증으로 Duncan method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도립공원 이용형태 요인의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무등산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1-50세 미만과 51-60세 미만에서 등산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등산시간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교원들이 등산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시설위치나 시설 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립공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결과 남자는 등산분류, 등산시간, 교통수단 요인에서 여자는 등산빈도 요인에서 높은 관심과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등산분류, 등산시간, 등산빈도 요인에서 높은 인식과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립공원 이용형태에 따른 시설만족 요인의 결과, 경력이 낮은 일반 등산참여자들이 동반자들과 함께 가벼운 산보나 산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동료들이 등산에 관심 있는 동호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며 산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수나 시설위치에서 높은 이용만족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참여자들은 약수터와 화장실을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갖추는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무등산 도립공원을 광주의 상징이며 자존심이라고 시민들이 관습적으로 느끼고 있으므로 자연보호 외에도 관광자원으로 이용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의 효과 및 지방자치제의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외지 탐방객의 왕래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적·역사적 전통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